



정 보

© 2009년도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및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안내

1. 신규교육

교육과정명	일정	주관	인원	시간	장소/기타
산업보건관리	6.15-19	중앙회	49	34H	병원간호사회 3층 교육장
	8.30-9.4	중앙회	50	34H	병원간호사회 3층 교육장
	11.9-13	중앙회		34H	병원간호사회 3층 교육장

2. 보수교육

교육과정명	일정	주관	인원	시간	장소/기타
근로자 정신건강증진	5.19-21	중앙회	15	24H	병원간호사회 3층 교육장
	6.24-26	중앙회	35	24H	병원간호사회 3층 교육장
	6.30-7.2	부산	39	24H	부산대학교 강당
	7.21-23	중앙회	19	24H	병원간호사회 3층 교육장
	9.15-17	중앙회	39	24H	병원간호사회 3층 교육장
	11.25-27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 모든 교육과정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입니다.

3. 의료인 면허보수교육

교육과정명	일정	주관	인원	시간	장소/기타
산업간호사의 근로자 상담능력 개발	9.9	대전	53	8H	대한간호협회 대전지부
	9.10	인천	30	8H	인하대병원 2층 강의실
	9.15	대구	46	8H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교육장
	9.22	부산	72	8H	BTC 아카데미 교육장
	11.18	중앙회		8H	서울대 간호대학 구관 강당

중앙회 소식

◎ 제 5회 산업간호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2009. 7. 8(수). COEX 컨퍼런스센터 304호에서 100여명의 산업간호사와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간호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발표는 1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간호 추진 사례 -직장내 웃음치료의 적용과 스트레스관리(문은주 (주)뉴코아 아울렛 보건관리자), 이기적인 몸매 만들기 프로젝트(이나경 삼성탈레스 용인연구소 보건관리자), 직장 내 절주 프로그램 적용(박용순 와이케이스틸(주) 보건관리자)-, 2부 금연프로그램 적용 추진 사례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한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임정미 대구텍(주) 보건관리자), 지역사회와 연계한 금연프로그램 적용-국고지원 사업 중심-(엄미정 한국산업간호협회 서울북부보건안전센터 사업부장), Health & Clean DYMOS 만들기(하지선 다이모스(주) 보건관리자)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심사는 심사위원장 임영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근로자건강보호과장, 박정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국장, 김순례 한국산업간호협회장, 김영임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대학 학장이 담당하였다.

이 날 최우수상인 노동부장관상은 박용순(와이케이스틸(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은 엄미정(서울북부보건안전센터), 산업간호협회장상인 산재예방상 및 건강증진상은 이나경(삼성탈레스 용인연구소), 문은주(주)뉴코아아울렛, 하지선(다이모스(주)), 임정미(대구텍(주)) 산업간호사가 수상하였다.

◎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고 노동부가 후원하는 ‘제 4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7.6~10)’을 맞이하여, 2009. 07. 6(월) COEX 그랜드 볼룸에서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재예방에 공헌한 산업안전보건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협회 회원 수상자는 국무총리 표창(GM대우 오토엔테크놀로지 보건관리자 안정혜 차장), 노동부장관 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건관리자 이경희 책임기술원, 조금옥(주)KT&G 원주제조창 보건관리자)의 3명이다.

◎ 국제세미나 참석 및 감사패 수상

2009. 07. 6(월). COEX 104호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산업보건 국제 세미나에서 본 협회 김순례 회장은 산업보건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패 수여받았다.

◎ 산업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2009. 7. 9(목),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국에서 주최한 사업장 산업 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건강증진분야에, 도시철도공사 최숙경 보건관리자가 ‘THP Program 실천으로 행복미소 가득한 서울도시철도’로, LG하우시스 최인영 보건관리자가 ‘자연을 닮은, 사람을 담은 행복한 생활공간’으로 각각 대상인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지부별 월례교육 현황

지부	지회	내용
서울	서울	일 자 : 2009. 6. 25(목) 장 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의실 101호 주 제 : 지역사회 정신보건 강 사 :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 참 석 : 25명
경기	안양	일 자 : 2009. 8. 27(목) 장 소 : 군포보건소 주 제 : 직장인 음주문화 관리 참 석 : 6명
	성남	일 자 : 2009. 8. 19(수) 장 소 : (주)파리크라상 회의실 주 제 : 정밀체력측정 결과별 Personal Training 참 석 : 7명
인천	인천	일 자 : 2009. 7. 23(목) 장 소 : 인천중부경찰서 주 제 : 사업장별 건강증진 사례소개 및 개발 참 석 : 7명
대전 · 충청	대전	일 자 : 2009. 6. 12(금) 장 소 : 대한간호협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회관 주 제 : 보건관리자를 위한 산업보건정책설명 및 의사소통기술 참 석 : 55명

지부	지회	내용
대구·경북	대구	일 자 : 2009. 6. 27(토) 장 소 : 대구 스타디움 경기장 주 제 : 09년 민간단체 산재예방사업 - 지역사회근로자와 함께하는 뇌심혈관질환예방활동 건강생활실천상담. 참 석 : 13명
		일 자 : 2009. 7. 10(수)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교육장 주 제 : 보건관리자 직무향상을 위한 워크샵 참 석 : 11명
		일 자 : 2009. 7. 25(토) 장 소 :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주 제 : 09년 민간단체 산재예방사업 - 지역사회근로자와 함께하는 뇌심혈관질환예방활동 건강생활실천상담. 참 석 : 13명
부산·경남	경남	일 자 : 2009. 7. 16(목) 장 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층 대강당 주 제 : 1. 근골격계질환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2. 근골격계질환의 업무관련성평가 3. 근골격계질환의 노동능력평가 및 업무적합성평가 참 석 : 45명
		일 자 : 2009. 8. 13(목) 장 소 :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 4층 멀티미디어실 주 제 : 1. 작업환경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보건분야 해설 3. 산업환기 참 석 : 45명
	울산	일 자 : 2009. 7. 22(수) 장 소 : 울산대학교병원 7층강당 주 제 : 심폐소생술 의료인 BLS과정 교육 참 석 : 12명
제주	제주	일 자 : 2009. 9. 26(토) 장 소 : 제주학생문화원 본관 1층 주 제 : 2009년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 제주보건관리자 주최 간이건강검진 실시 참 석 : 12명

한국산업간호학회 소식

● 2009년도 전기 학술대회 개최

7월 8일(수) COEX 컨퍼런스센터 304호에서 100여명의 산업간호사와 지역사회 간호학 분야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진단 사후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 '변화된 제도와 정책 방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의 이해준 부장이 '변경된 일반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제도',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의 여인형 사무관이 '변경된 특수건강진단 제도'에 관하여 각각 발표하였고, 제 2부 '변화된 제도의 산업간호적용'에서는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정혜선 교수가 '변경된 건강진단제도의 발전방향, 울산 삼성정밀화학의 김수미 산업간호사가 '건강진단 사후관리 운영 및 실제'에 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 학회 회원가입 안내

학회 가입원서를 학회 홈페이지(<http://www.ksohn.or.kr>)의 학회소식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혹은 이메일로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 회 장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김영임 교수

전화 : 02-3668-4704, Fax: 02-3668-4704, E-mail : young@knou.ac.kr

총무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최은숙 교수

전화 : 053-420-4936, Fax : 053-421-2758, E-mail : eschoi2007@knu.ac.kr

평생회비 200,000원(년 2회 분납 가능), 개인연회비 10,000원, 기관연회비(도서관) 100,000원

예금구좌 : 농협 1165-01-068015 / 예금주 한국산업간호학회

노동계 소식

◎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 10개 국어로 번역된다.

- 건강진단 항목별 설명자료도 번역 · 보급, 통역 상담서비스 강화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7.27(월)부터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진단 결과표가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리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10개 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표와 건강진단 항목별 설명자료를 만들고 이를 유관기관이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에 널리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표 및 설명자료들이 모국어로 표기 되어 있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한국어로도 표기되어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 주변의 한국인 동료 근로자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번역자료와 설명 자료는 전국 5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보급되어 건강진단 및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역 상담서비스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내국인도 알기 어려운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임을 감안, "3자간 통역시스템" 을 갖춰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통화 중에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09년 3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으로,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 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2006년 TCE에 중독되어 스티븐슨증후군 및 급성간염으로 1명이 사망하고, 2008년 3명이 DMF에 중독되는 등 직업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차상호 (02-6922-0957)

◎ 노동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사업장별 업무 지속계획(BCP) 수립 계획

노동부는 사업장에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유행을 대비한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토록 안내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유행시 대규모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는 업무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BCP)수립 매뉴얼" 은 대유행시의 사업장 대응체계(조직) 마련, 대규모 결근발생에 대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및 인력운용 계획수립, 사업장내 감염관리,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토록 안내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BCP)수립 매뉴얼」 을 사업장에 보급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산업보건기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산업보건기관이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업무지속계획(BCP) 수립을 지도토록 하고 경총 등 사업주단체 등에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 교육토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건강검진 시 감염여부 확인 및 예방 수칙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인도 시 사업주에게 예방교육 안내문 및 업무지속 계획 매뉴얼을 배부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훈련생 교육 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수칙을 안내·교육하고, “심각”단계 발령시 훈련생에 대한 일일 발열감시를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김정연 (02-6922-0955)

◎ 노동부, 재해자 1만명 감소를 위한 하반기 대책 발표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45,20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45명이(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재해가 감소(Δ 2,142명, Δ 11.9%)한 반면, 임업(\uparrow 619명, \uparrow 85.4%)과 서비스업(\uparrow 807명, \uparrow 5.5%)에서는 재해가 증가하였고,

건설업 재해는 소폭 감소(Δ 96명, Δ 1.0%)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uparrow 1,433명, \uparrow 10.4%)에서만 재해가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협착·추락재해는 감소한 반면, 절단재해(\uparrow 836명, \uparrow 35.7%)와 전도재해(미끄러지거나 넘어짐, \uparrow 599명, \uparrow 6.6%)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재해자 감소목표 1만명에 못 미치는 5,000명 감소 '09.6월말까지 월별 평균 재해자에 12를 곱하여 신출한 연말 추정재해자수는 90,400명이며, '08년 재해자수 95,806명에 비해 5,400명 정도 감소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재해다발·증가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과 근로자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기술자료 보급을 주 내용을 하는 하반기 재해예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상반기 중 재해가 많이 증가한 임업·서비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개발·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업(영림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기술자료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안전보건 캠페인을 전개하고, 30인 이상 영림작업장에 대해 지방노동청·안전공단의 전담 직원을 지정, 기술지원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위생서비스·건물관리·보건복지·교육서비스업에서 8만8천개소를 선정,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고, 건물관리 등 24만8천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해당 직능단체(16개소)·

지자체와 MOU를 체결, 캠페인, 종사자 교육, 산재예방 결의대회 및 현수막 부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프레스 등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 1만개소를 선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끼임이나 절단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9월중에는 장·차관이 직접 건설·조선 및 30대 대기업의 대표나 안전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제고에도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산업보건계 소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심경영 레서피 행복한 동행’ 출간

* 이 책의 첫 번째 테마인 ‘안전지킴이’편에 본 회 이사인 (주)인터엠 보건관리자 송근희 과장의 일상이 담겨 있다. 송근희 과장은 보건과 안전은 함께 가야 한다는 신념하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간호사가 안전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고 백안시하던 사업장 근로자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현재 안전과 보건의 실무를 총괄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주관하며,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정책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간호사로서의 직무영역을 안전으로까지 확대하여 역량을 펼치고 있는 송근희 과장의 사례는 모든 보건관리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 일독을 권하고 싶다.

다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행복한 동행

행복한 동행은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 까지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단이 발간하는 것으로 현직기자들이 6개월간 일터를 누비며 현장의 안전보건 목소리를 담아낸 단행본이다.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첫번째 테마인 '안전지킴이' 편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땀 냄새나는 진솔한 이야기들로 이뤄져 있다.

두번째 테마인 '안전경영성공'편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신바람나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세번째 테마인 '사고극복사례'편은 실제 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물론 재해 당사자들의 사고극복 사례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지역사회 건달에서 무재해 전도사가 된 이야기, 탄광에서 지급된 보호구를 막걸리와 바꿔먹던 시절 이야기, 콧물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던 사연 등 총 18개의 살아있는 현장의 안전보건 이야기가 소개된다.

시원스럽게 이어지는 현장 화보와 사이사이 제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설명, 산재판례 등이 양념처럼 책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 '09. 8. 7시행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1. 석면조사제도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함

※ 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음

2. 석면해체·제거 작업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cm³)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할 수 없음

4.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자 교육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기준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구분	교육 종류	교육시간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자과정	18시간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18시간

※ 고시 시행 이전 3년 이내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석면조사자 및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과정 교육”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고시에 따른 해당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2009년도 제2차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KOSHA Code 또는 KOSHA Guide 제·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KOSHA Code 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Code)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순번	코드번호	공 표 코 드 명	비고
1	M- 65 -2009	합성수지 압출코팅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2	M- 48 -2009	스크류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3	M- 41 -2009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4	M- 49 -2009	농업기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5	E- 8 -2009	에너지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6	E- 3 -2009	정전 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7	E- 28 -2009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전부개정
8	D- 46 -2009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9	D- 11 -2009	폭발억제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10	D- 5 -2009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11	H- 15 -2009	펄프식시료채취법과 흡착관·열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 의한 유기화합물질 평가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12	H- 55 -2009	확산시료채취법과 흡착관·열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 의한 유기화합물질 평가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13	H- 54 -2009	N-핵산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14	H- 17 -2009	폐활량 검사 및 판정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병 발생 경보(KOSHA ALERT). 발령일: 2009.09.03

톨루엔 중독에 의한 사망재해자 발생

재해자 발생 개요

- 근로자 3명이 2008년 10월 철도건설업체 D사에 입사
- 2009년 8월 근무중인 재해자들이 개착터널 외벽과 사면 사이의 공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가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개착터널 방수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뿜칠 도포과정에서 발생된 톨루엔 등 유기용제 증기에 급성 중독 되어 쓰러진 후 증기가 채류된 공간에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입사 11개월 후)

발생 원인

- 발견 당시 재해자는 톨루엔 취급 작업 시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
- 작업장소가 터널 외벽과 산 절개지의 사면 등으로 사방이 막혀 통풍이 불충분한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였지만 환기설비 미설치
- 송풍기 등을 이용한 충분한 환기의 미실시

톨루엔의 건강영향 및 유해성

- 두통, 호흡기 자극, 눈물, 나른함, 유쾌한 기분, 경미한 구역질, 콧물, 현기증, 졸음, 운동 실조, 중추신경계 장애(만성중독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건강진단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간 기능, 비뇨기계 기능, 신경기능 검사 실시
- 배치 후 첫번째 건강진단: 6개월 이내
- 반드시 작업종료 후 소변검사 실시

2. 작업환경측정 실시

- 6월에 1회 이상 측정(노출기준 50ppm)
-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
- 작업 시 충분한 환기 실시

3. 작업관리 및 보호구 착용 등

-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피부 보호용 도포제 비치(불침 투성)
- 신체 노출 시 이용 가능한 세척시설 설치
- 근로자 채용 시(8시간), 정기(매월 2시간), 특별(16시간) 안전보건교육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및 게시
- 경고표지 부착 및 MSDS 교육

* 상담 : 근로자 건강문제, 일터건강지킴이(1644-958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자료 전시관」 리모델링 오픈

- 오픈일 : 2009년 9월 16일(수)
- 장소 : 공단 본부 1층 KOSHA 자료 전시관
- 기본 콘셉트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KOSHA 자료 전시관'
- 특징
 - 고객의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해 콘텐츠별 전시 테마 구성
 -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온라인 체험 공간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상세히 검색, 다운로드 활용 가능
 - 공단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신간자료에 대한 신속한 정보 및 체험 가능
- 문의 및 건의사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디어개발실(032-510-0690)
- 고개 소리함(KOSHA 자료 전시관)

간호계 소식

◎ 이달의 독립운동가 ‘박자혜 간호사’ 추모식 개최

-송고한 뜻과 희생정신 기리기 위해 7월 15일 묘역서 마련-

- 국가보훈처가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박자혜(朴慈惠) 간호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식이 오는 7월 15일 (수) 오후 1시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묘역에서 열렸다.
-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충청북도, 청원군, 독립기념관, 광복회가 후원하는 이날 추모식은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서거한 박자혜 선생의 송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 독립운동가 박자혜 선생은 단재 신채호선생의 부인으로 3.1운동 당시 간호사들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인 간우회를 조직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여성의 몸으로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를 돕는 등 항일운동의 선봉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
- 선생은 일본경찰에 여러 차례 연행되어 고초를 겪다 병을 얻어 조국의 독립을 보지도 못한 채 1944년 서거했다.
-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77년과 1990년 대통령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
- 한편 추모식에는 정영희 국회의원과 김재욱 청원군수, 차창조 광복회 사무총장 등 정관계 인사와 간호계 원로, 나기장 수상자, 대한간호협회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 또 추모식이 끝난 뒤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전시회를 돌아보았다.

◎ 대한간호협회 ‘2009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9월 25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서 개최

- 아기엄마 10명 중 6명 모유수유 시 어려움 겪는다 -

성공적인 모유수유 정착을 위한 장치 마련 시급

○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아기엄마 10명 중 6명은 모유수유 방법이나 기술 부족, 젖몸살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다수의 아기엄마가 인터넷과 지인 등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 신생아실과 소아과 외래, 지역 보건소 등에서 올바른 모유수유 정보 제공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대한간호협회는 ‘2009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여한 4~6개월 아기 엄마 가운데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2%가 젖 잘 나오게 하는 법, 올바른 젖 물리기, 젖먹이는 자세 및 시간, 야간 모유수유, 모유수유 기간 등 구체적인 모유수유 방법이나 유방 마사지, 유두 상처·젖몸살 예방 및 관리 등 기술 부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 또한, 모유수유 관련 지식습득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는 물음에는 ‘인터넷’이라고 답한 경우가 27.4%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책’ 19.5%, ‘의료인’ 18.4%, ‘친구나 동료’ 11.7%, ‘시부모나 친정부모’ 9.8% 순으로 나타나 아기엄마에게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모유수유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모유수유 계획시기는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는 89.8%가 ‘임신 전’이라고 답해 모유수유에 대한 높은 의지를 나타냈으며, ‘분만 후’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 언제까지 모유수유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2개월이라는 답변이 63.1%로 가장 많았고, 24개월이라는 응답도 24%로 나타나 대부분(87.1%) 1~2년 정도 모유수유를 계속하겠다고 답한 반면, 6개월이라는 응답은 2%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기 엄마들이 아기의 건강을 위해 WHO에서 권장하는 24개월 모유수유 기간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모유 이외의 식품은 언제부터 먹일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6개월이라는 답변이 80.5%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아기엄마들이 6개월 무렵에는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아기에게 있어서 모유는 이상적인 완전식품이며 모유수유는 아기를 위한 가장 행복한 경험 중의 하나이지만 모유수유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다수의 아기엄마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기엄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2009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지난 7월 16일(목)부터 오는 9월 25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15개 시·도별로 개최하였다.

○ ‘2009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모유로 키운 건강한 우리 아기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아기 건강과 건강한 인격형성을 위해 간호사들이 앞장서겠다는 뜻에서 1995년에 시작한 이후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 9월 4일 ‘노인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노인의 성(性)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시급 –

건강한 노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건강한 노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의 성을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는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9월 4일(금) 오후 일산 킨텍스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노인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윤옥정 용인시노인복지관장이 ‘노인의 성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것이다.

○ 윤옥정 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노인의 성과 관련된 신체·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여성노인이 갖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노인의 성을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 신수진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도 ‘현대사회와 노인의 성’ 주제 발표에서 “노인의 성폭행 범죄는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성폭행 사건 중 노인범죄 비율도 지난 1996년 1.3%에서 2008년에는 4.1%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노인들이 건강하게 성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성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밖에도 김윤정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와 김영혜 부산대 간호대학 교수는 각각 ‘노인의 성 체험연구 결과’와 ‘올바른 노인의 성문화 정착을 위한 제안’을 통해 노인의 성적 행동은 육체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위안의 의미로 삶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라며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욕구가 제약 당하거나 차별받아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세미나는 노인의 성 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사회적 시각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의료계 소식

◎ 흡연을 감소를 저해하는 담배제조사의 전략 규탄 WHO, 서태평양 회원국에게 강력한 금연정책 이행 촉구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23일 서태평양 총회에 참석(수석대표: 유영학 차관)하여 전 회원국의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완전 이행을 목표로 하는 2010-2014 담배근절 발의(Tobacco Free Initiative) 실행계획을 의결하였다.

1990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5개년 실행계획을 통해 각 회원국에게 담배근절을 위한 지침, 도구 및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 회원국, 전문가, 당사자 등의 자문과정을 거쳐 작성된 실행계획(안)을 상정하였다.

2010-2014 담배근절 발의 실행계획은 각 회원국이 담배와의 전쟁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담배규제 실행계획을 개발·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1)성인 및 청소년 흡연율의 10% 감소, (2)60%이상의 담배세 도입, (3)정부부처·공무원·정부 프로젝트의 직·간접 담배회사 후원금 거절 등 총 9개 영역에서 각 회원국의 금연정책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1)입법과 정책, (2)담뱃세, (3)통제와 지역 실행, (4)협조와 파트너십, (5)투자계획과 자원관리, (6)지도자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 (7)감시와 지식관리, (8)대중인식·교육·의견교환·정책지지, (9)담배의존증 치료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담배규제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담배제조사 등 담배산업의 로비와 정책입안자, 정치 지도자, 연구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태평양 지역은 전 회원국이 모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을 마친 유일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WHO의 5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흡연자 수, 가장 높은 성인남성 흡연율, 가장 빠른 여성·청소년 흡연자 증가를 보이며 전 세계 흡연자의 1/3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흡연 관련 질병으로 매분마다 2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을 의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며, 현재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 다수의 담배 규제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 내년부터 한 병원 내에서 의과-한 의과-치과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010년 1월 31일 시행)을 9월 29일(화)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동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 의과 : 내과, 가정의학과 / 한의과 :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 치과 : 구강내과 한·의·치의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다만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이고 그동안 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우리 한·의·치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우리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 개설자나 가족 등 특수 관계인들이 한방병원과 의원, 병원과 한의원 등을 각각 개설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차원에서의 의료 자원의 낭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임상효과, 환자 만족도,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한·의·치의 협진의 양적·질적 발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빈혈”, 여성이 남성보다 3.5배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빈혈(D50-53, D55-59, D60-64)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001년 27만5천명에서 2005년 35만8천명, 2008년 44만2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8년간(2001-2008) 60% 이상(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실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이 9만9천명이고 여성은 34만3천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3.5배 많았다.

[‘빈혈’ , 연도별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 (단위 : 명)

성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275,055	268,369	285,418	323,094	357,851	375,895	411,763	441,869
남자(A)	56,351	56,799	59,473	67,808	75,514	78,675	89,195	98,870
여자(B)	218,704	211,570	225,945	255,286	282,337	297,220	322,568	342,999
성비(B/A)	3.9	3.7	3.8	3.8	3.7	3.8	3.6	3.5

연령별로는 40대가 10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대 8만4천명, 9세 이하 6만2천명, 20대 5만명, 50대 4만6천명 순(順)이었고, 70대 이상 노인층에서도 3만5천명 이상의 실진료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2001-2008) 연령대별 실진료환자수 증가율은 9세 이하 연령층에서 150%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10대 이후 30대까지는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다가 40대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율은 다시 점차 커져 40대 88%, 50대 106%, 70대 118%, 80대이상 171%의 증가율을 보였다.

10만명당 성별 실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80대이상(1,547명) >9세이하(1,317명) >70대(1,095명) 순(順) 이고, 여성은 40대(2,222명) >30대(1,860명) >80대이상(1,394명) 순(順)이었다.

‘빈혈’ 질환의 상병별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철 결핍성 빈혈(31만6천명)’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기타 영양성 빈혈(7천명)’, ‘기타 무형성 빈혈(5천명)’, ‘비타민 엽산 결핍성 빈혈(3천명)’,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3천명)’, ‘후천성 용혈성 빈혈(2천명)’ 등의 실진료환자가 있었다.

‘빈혈’ 질환의 상병별 실진료환자수는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나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 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또한, 최근 8년간(2001-2008) 실진료환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상병은 ‘엽산 결핍성 빈혈’로 4.3배 증가했으며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도 2.0배 증가했으나, ‘기타 영양성 빈혈’과 ‘낮적혈구 장애’, ‘후천성 순수적혈구 무형성[적모구감소증]’ 등은 감소했다.

[‘빈혈’ 주요 상병별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 증가 추이] (단위 : 명)

성별	철 결핍성 빈혈	기타 영양성 빈혈	기타 무형성 빈혈	엽산 결핍성 빈혈	비타민B12 결핍성 빈혈	후천성 용혈성 빈혈
2001년(A)	187,531	10,256	5,072	632	1,337	1,358
2008년(B)	316,296	6,908	4,993	2,749	2,635	1,529
증가비(B/A)	1.7	0.7	1.0	4.3	2.0	1.1

‘빈혈’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1년 346억원에서 2005년 414억원, 2008년 629억원으로 나타나, 2008년 빈혈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1년 보다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울러, 공단이 부담한 2008년 빈혈로 인한 급여비는 모두 447억원으로 외래 172억원, 입원 157억원, 약국 118억원 순(順)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맹호영교수는 ‘빈혈’ 질환이 40대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10대의 급성장 및 생리의 시작, 20대 이후에 겪는 임신, 출산과 연관된 철분결핍이 40대에 누적되어 빈혈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인하여 혈액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고 ‘빈혈’ 질환 증상 및 관리요령에 대해서는 “빈혈은 흔히 생각하는 어지러울 때 빈혈을 떠올리는 것과는 달리 숨차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 집중력 장애를 보이며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는 등 모호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당뇨병, 신, 간기능 혹은 갑상선의 장애와 감별이 필요하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자장면과 같은 검은 변 등 위장관 출혈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하며 건강을 위하여 차를 음용하는 경우 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에 심각한 장애를 주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사와 적절한 간격을 둘 줄 아는 지혜가 요구된다.

일단 철분결핍빈혈로 진단되면 원인규명(위장관 출혈, 산부인과적 문제, 영양섭취에 관련된 사항)이 필요하며 적절한 철분 투여가 필요하므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하였다.